

고려의 대화궁터유적과 만월대유적의 관계

리영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선조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을 더 많이 발굴하고 잘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3권 125페이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가장 대표적인 왕궁유적들로는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있는 고구려 시기의 안학궁터와 개성 송악산의 남쪽기슭에 넓게 펼쳐진 고려시기 기본왕궁이었던 만월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경복궁을 들수 있다. 이 유적들과 함께 평양시 룡성구역에서 발굴된 대화궁터유적이 12세기 중엽에 건설한 고려시기 궁전터유적으로 알려졌다.

대화궁터유적은 고려시기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란》으로 불리웠던 개경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서경인민들의 투쟁과 직접 관련되는 역사유적이며 고려가 자기 수도를 당시의 서경이었던 평양으로 옮길 목적밑에 12세기 전반기에 건설하였던 고려봉건국가의 기본왕궁이었다.

《고려사》를 비롯한 역사기록들에 의하면 대화궁건설공사는 고려 인종 6년인 1128년에 시작하였으며 다음해인 1129년에 일부 궁전건물들이 완성되어 왕이 새 궁전의 건륭전에서 여러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고 한다. 역사에 《묘청의 란》으로 전해지는 서경인민들의 투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1134년까지 인종왕이 여러차례에 걸쳐 대화궁에 행차하였으며 바로 대화궁에서 연회를 베풀거나 조서를 내리는 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이처럼 대화궁은 국왕을 옮겨오는 방법으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수도로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고구려와 같은 강국을 일떠세워보려는 고려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으로 평양에 건설된 고려봉건국가의 기본왕궁이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대화궁은 개성에 있는 고려의 왕궁터 만월대와 류사한 점이 매우 많다.

무엇보다먼저 고려의 왕궁터들인 평양(고려시기 서경)의 대화궁터와 개성(고려시기 개경)의 만월대를 대비하여볼 때 지형선정과 건물배치, 평면 및 립면구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것이다.

공통되는 점은 우선 궁전터들이 궁성으로 둘러싸여있고 궁전건물터들이 북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며 차례로 배치되어있는것이다.

대화궁의 궁성은 여러개의 산릉선과 남쪽 평지부분을 따라가며 궁전터전체를 둘러막으며 대화궁터유적의 바깥변두리를 이루고있다.

대화궁성과 만월대궁성에서의 공통점은 궁전터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명이나 지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쌓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성축조방식에도 맞으며 고구려, 발해, 고려에 이어지는 우리 나라 중세수도성의 형식변천에도 잘 부합되는것이다.

대화궁터와 만월대의 궁전건물터들은 북쪽으로 가면서 완만하며 경사진 대지위에 점차 높아지면서 차례로 배치되어있다.

대화궁터에는 궁전건물들이 제1궁전구역과 제2궁전구역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제1궁전구역은 대화궁성안의 거의 중심부분에, 제2궁전구역은 뒤부분에 놓여있다.

제1궁전구역의 궁전건물터들은 산릉선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형성된 대지우에 있으며 문터와 1호건물터, 2호건물터들은 높은 축대우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층층으로 배치되어있다. 제2궁전구역은 제1궁전구역보다 북쪽에 그리고 조금 높은 곳에 있는데 역시 문터, 1호건물터, 2호건물터, 3호건물터 등 여러 건물터들이 산경사면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며 차례로 질서있게 놓여있다.

대화궁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성의 만월대 기본건축군에서 회경전터, 장화전터, 원덕전터들이 북쪽으로 가면서 차례로 놓여있으며 만월대의 서쪽부분에 있는 궁전건물터들도 역시 북쪽으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며 차례로 배치되어있다.

대화궁터와 만월대는 위치선정과 건물배치에서 다같이 전체적으로는 엄숙하면서도 안정된감을 느끼게 하며 선행한 고구려왕궁터와의 계승관계를 잘 보여준다.

공통되는 점은 또한 대화궁과 만월대궁전건물터들의 중심축선이 일직선이나 평행으로가 아니라 조금 어긋나게 설정되어있는것이다.

대화궁 제1궁전구역의 건물터들은 하나의 중심축우에 남북방향으로 차례로 놓여있는데 이 건물터들의 중심축방향은 서쪽으로 28° 치우친 남향이다. 제2궁전구역 건물터들의 중심축선 역시 서남향인데 서쪽으로 30° 치우친 남향으로 되어있다. 결국 대화궁 제1궁전구역과 제2궁전구역 건물터들의 중심축선은 방향각도는 2° 정도 차이이며 2° 정도 치우쳐있는 두 궁전구역 건물터들의 중심축선은 남쪽으로 길게 뻗어나가 대화궁 제1궁전구역 남쪽문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서로 사귀고있다.

대화궁유적과 마찬가지로 만월대궁전건물터들인 회경전의 중심축선과 장화전터, 원덕전터들의 중심축선이 평행이나 일직선으로가 아니라 서로 어긋나게 설정되어있다. 서로 어긋나는 회경전의 중심축선과 장화전, 원덕전의 중심축선은 만월대 남쪽의 신봉문터에서 사귄다.

대화궁터와 만월대의 궁전건물터 중심축선들이 서로 어긋나게 설정된것은 고려시기에 건설된 두 왕궁건축의 평면구성에서 일치되는 공통점이며 또 고려시기의 왕궁건축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것이다.

공통되는 점은 또한 독자적인 건축터들이 각기 하나의 축대우에 놓여있는것이다.

대화궁터유적의 제1궁전구역과 제2궁전구역의 매 건축터들은 개별적인 자기의 축대를 가지고있으며 바로 이 축대우에 궁전건물터, 회랑터, 마당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터가 놓여있다. 실례로 제1궁전구역의 1호건축터는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 면을 맞추어 쌓은 165m 길이의 축대우에 있는데 이 축대의 남쪽면 높이는 8.3m이상에 달한다. 축대우의 건축부지에 넓은 마당이 있고 계단으로 일정한 높이의 단우에 올라서면 1호건물터가 있는데 마당과 건물터전체를 회랑이 둘러싸고있어 하나의 독자적인 건축터를 이루고있다.

만월대의 회경전터, 장화전터, 원덕전터들도 다 독자적인 축대를 가지고있으며 회경전터의 서쪽에 있는 립천각터도 회경전터의 축대와 구별되는 자기의 개별적인 축대우에 위치하고있다. 회경전터의 남쪽에 현재도 정연하게 축조되어있는 만월대의 축대는 높이가 7.8m이고 돌계단의 수는 33단이다.

둘로 축대를 높이 쌓고 축대우에 궁전건물터들을 배치하는것은 대화궁터와 만월대유

적에서 꼭같이 찾아볼수 있는 공통되는 측면이며 고구려왕궁건축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고려왕궁건축의 새로운 면모이다.

공통되는 점은 또한 개별적인 건물터들의 평면짜임새가 중심건물에 나래채가 붙은 형태를 이루고있는것이다.

대화궁터에서 제2궁전구역 1호건축터의 궁전건물은 중심부분에 동서길이 15.5m, 남북너비 13.1m의 규모를 가진 가운데채(본채)가 있고 그 좌우에 동서길이 9.8~9.9m, 남북너비 11.23~11.25m정도의 나래채가 잇달린 형태의 평면짜임새를 가지고있다. 그리고 제1궁전구역의 2호건축터, 제2궁전구역의 3호건축터를 비롯한 여러 건축터들의 궁전건물터들도 평면짜임새가 나래채가 달린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대화궁터에서 궁전건물터의 중심단을 넓고 높게 마련하여 거기에 가운데채(몸채)를 앉히고 그 좌우에 조금씩 낮고 좁아지게 동쪽나래채, 서쪽나래채를 잇달아 연결하여 나래채형태의 건물을 이루게 한것은 대화궁유적의 건물터들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중심건물에 나래채가 붙은 형태의 건물평면짜임새는 고구려시기의 안학궁터, 고려시기의 만월대 회경전터, 장화전터, 원덕전터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으로서 중세 우리나라 왕궁건축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평면구조라고 말할수 있다.

공통되는 점은 또한 매 건축터들이 회랑으로 둘러막혀있고 일부 건축터들에는 여러개의 연결회랑, 보조회랑들이 설치되어있는것이다.

대화궁터유적에서는 매 건축터들이 모두 회랑으로 둘러막혀있다. 대화궁터의 제1궁전구역 1호건축터에는 축대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53m이고 너비가 5~6m인 동쪽회랑과 서쪽회랑이 있으며 남쪽회랑은 길이 58m이고 너비가 6m정도이다. 제1궁전구역 2호건축터와 제2궁전구역 1호건축터, 3호건축터들에서도 동쪽, 서쪽, 남쪽 세면으로 빙둘러 백수십m에 달하는 회랑터들이 조사발굴되었다.

제1궁전구역 2호건축터와 제2궁전구역 1호건축터들에는 여러개의 연결회랑들이 설치되어있다. 연결회랑들은 건축터의 동쪽회랑, 서쪽회랑들과 평행을 이루면서 건물터의 남(앞)쪽에 있는 마당을 구분해주고있다. 궁전건물터의 남쪽마당부분에 남북방향으로 연결회랑들을 설치한것은 고구려시기의 궁전건축에서는 전혀 볼수 없었던 특이한 형식이다.

고구려시기의 궁전유적인 안학궁터에서도 동, 서, 남, 북 네면에 설치한 회랑들을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안학궁터에서는 동쪽회랑, 서쪽회랑들과 남북방향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남쪽회랑과 궁전건물들을 이어주는 연결회랑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려의 왕궁터들인 대화궁터와 만월대에서는 이밖에도 매 건축터들이 기반을 높이 쌓고 그우에 궁전건물들을 세우고 남쪽에는 마당을 형성한것, 여러 건물들이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대칭, 비대칭으로 합리적으로 배치된것, 궁전건물터 중심단의 북쪽에 다음건축터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시설이 달린것, 정연한 배수시설들을 갖춘것을 비롯하여 서로 공통되는 모습들이 대단히 많다.

다음으로 고려의 왕궁터들인 평양의 대화궁터와 개성의 만월대를 대비하여볼 때 일련의 공통점들과 함께 차이나는 점도 있다는것이다.

차이점은 우선 대화궁터에는 만월대에 비해 건물터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것이다.

만월대에는 왕궁의 기본건물들이 배치되어있던 중심건축군뿐만아니라 서북건축군, 서부건축군 등에 건물들이 매우 조밀하게 서로 잇달려 배치되어있다. 그러나 대화궁터에는 매

궁전터들에 기본건물들만 있으며 건물들의 수가 많지 않다.

차이점은 또한 대화궁터가 단일문화층이고 기와의 종류도 단순한데 비해 만월대에는 여러개의 문화층이 형성되어있으며 기와종류도 매우 많은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왕궁의 존속기간과 관련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대화궁은 1128년 9월에 궁터를 정하였고 1128년 11월에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추운 겨울에도 공사를 추진하여 1129년 2월 20일에 새 궁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1131년 8월에 대화궁성을 건설하고 궁전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그후 1135년에 《묘청의 란》으로 불리운 개경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서경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났으며 1136년에는 대화궁이 폐궁되어 인차 없어지고말았다. 이처럼 대화궁은 존속기간이 10년도 못된다. 그러나 만월대는 고려성립초기부터 1232-1270년의 강화천도 39년간을 제외하고 홍두적의 침입으로 왕궁이 불타버린 1351년이전까지 기본왕궁으로 리용되었으며 이 기간에 궁전 건물들이 끊임없이 보충되고 증축되었다. 이로부터 만월대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거의 차마를 잇대여 즐비하게 배치되어있었으나 존속기간이 짧은 대화궁에는 궁전건물들이 만월대보다 수적으로 적지 않을수 없으며 조밀하게 배치될수가 없다.

대화궁터와 만월대는 건설 및 존속기간이 다른것만큼 문화층의 수도, 기와의 종류도 차이나게 된다.

대화궁터유적과 만월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고려의 높은 건축술과 우수한 문화 발전면모를 실물그대로 전하여주는 동시에 고구려와 고려의 문화적계승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